

9/10

2013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미술시대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54

**KIM GA-BEOM**

Ci Kim, Shin Sang-Ho

Lee Mok-UI, Gwak Won-Mi



9 771975 862603  
ISSN 1975-8626



##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2013전

2013. 7. 28 - 9. 22 강원도 철원 DMZ 접경지역 / 서울 아트선재센터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는 참된 비무장의 의미와 그 미래상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철원 DMZ 접경 지역의 안보관광 코스를 중심으로 2012년 7월 전시의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다.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지인 한국 내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주위에 설정된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군사적 완충 지대이다. (문의: 02-733-8948)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는 참된 비무장의 의미와 그 미래상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철원 DMZ 접경 지역의 안보관광 코스를 중심으로 2012년 7월 전시의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다.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지인 한국 내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주위에 설정된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군사적 완충 지대이다. 현재의 DMZ는 비무장 본래의 뜻과는 반대로, 완전히 무장되어 지구상 그 어떤 지역보다 격렬히 대치하고 있는 남북 분단의 상징 지역으로서 남겨져 있다. 그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은 전체 DMZ 면적 중 약 삼분의 일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또한 이곳은 한국 고대사와 근대사의 중요 유적들을 다수 보유하고,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후 5년간 북한의 영토였다가 한국 전쟁 이후 남한으로 편입된 수복지구이기도 하다.

2013년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는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시작해 참된 비무장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했던 지난해 프로젝트에서 보다 확장하여, DMZ 접경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위치 등 지역이 갖는 의미를 다각적인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모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월례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철원의 민북마을을 중심으로 DMZ 접경 지역의 건축적 리서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시대 미술가들의 철원 DMZ 접경 지역을 바탕으로 장소특정적 작업이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참여작가 : 히만 청, 함양아, 황세준, 제시 존스, 정연두, 폴 카잔더, 김선경, 구정아, 이주영, 오형근, 파레틴 오렌리,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윤수연, 알프레드 하르트, 김태형, 백승우, 마그누스 베르투스, 치엔-치 창, 아민 린케, 히로시 미나미시마, 노순택, 박찬경, 선 스나이더, 윤수연



▲ 정연두 · 태극기 휘날리며 - B 카메라\_Brotherhood of War - B Camera · (L) 106x144cm / (R) 106x179cm · diptych photography · 2013 ■ 김선경 · 철원 들녘\_Rice Fields in Cheorwon · oil on canvas · 182x259cm · 2012-2013 ▼ 오형근 · 하자 할 수 있다, 육군 보병학교\_Let's Try We Can Do It, the Army Infantry School · C print · 92x230cm · 2011